

Tremper Longman 박사,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세션 4,

3단계: 하나님은 압제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4단계: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강화하고 심화시키십니다.

5단계: 예수님은 인간과 영적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 2024 Tremper Longma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Tremper Longman입니다. 이것은 세션 4, 3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십니다. 4단계: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강화하고 심화시키십니다. 5단계: 예수께서는 인간과 영적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두 단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과 육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전사로 오시는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두 번째 단계와 겹칩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순차적인 단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단계를 끝냈을 때, 바벨론이 포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패배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3단계가 그에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3단계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이 제가 보기에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구약 시대 말기, 유배 기간과 유배 기간 이후의 선지자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포로생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압제자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신성한

전사로서 자신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인들이 바빌로니아인들을 패배시킨 후 바빌론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도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비록 어떤 의미에서는 539년에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페르시아인들이 이제 유다의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더 대왕 치하에서 페르시아인들을 물리쳤을 때, 이제 그들은 그리스인들의 압제적인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광대한 제국이 그의 장군들 사이에 분할된 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이집트 왕조, 그리고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인들이 현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들은 로마 점령의 억압적인 존재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우리를 신약 시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등과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세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압제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고 더 큰 포로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인 아주 이른 시기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매우 긴 삶의 대부분을 바빌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흥미로운 책입니다. 처음 여섯 장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궁정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섯 장은 종말론적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네 장 중 첫 번째 장인 다니엘서 7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 여섯 가지 이야기와 네 가지 종말론적 환상 모두가 청중에게 동일한 기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외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당황하지 말고, 악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이 어떻게 그 주제를 제시하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용사의 도래를 예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15 이하에는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첫 번째를 읽을 것입니다. 아마도 14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여기에 읽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꿈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벨사살이 그의 아버지이자 당시 벨사살과 공동 왕이었던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우리가 바빌로니아 제국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간단히 말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어 불고, 각각 다른 모양의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다니엘 7장의 많은 부분이 21세기 서부에 살고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꽤 잘 알려진 고대 근동의 이미지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바다가 혼돈, 심지어는 악을 상징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매우 혼란스러운 바다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니까 바다짐승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바다 짐승들은 흔히 반창조세력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날개가 찢어지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곰처럼 생긴 둘째 짐승이 있었습니다.

한쪽이 치켜올라져 있고, 입에 갈비뼈 세 개가 있고, 이빨 사이에 세 개의 갈비뼈가 있어서 일어나서 살을 배불리 먹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있었는데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새의 날개처럼 네 개의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머리가 네 개였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글썄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천사 해석자가 나중에 이 짐승들이 악한 인간 왕국을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라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 왕국을 식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한 학파, 좀 더 전통적인 학파에서는 최초의 짐승이 로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대-페르시아, 그 다음은 그리스, 그 다음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마인, 그 다음은 메디아, 그 다음은 페르시아인, 그 다음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종류의 특정 식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요한 점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왕국을 식별하는 데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옳고, 둘 중 하나가 옳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더 전통적인 견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에는 그것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미지가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무섭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인들이 잡종을 정말 싫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잡종으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두 번째는 잡종은 아니지만 한쪽을 키우고 갈비뼈 세 개를 먹는 잔인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새처럼 네 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도 역시 a, 독일인들이 미슈베젠(Mischwesen) 또는 혼합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끔찍하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이 왕국들의 성격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정은 넷째 짐승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밤에 이상 중에 보니 네 번째 짐승이 있으니 무섭고 무섭고 심히 강하였더라.

그것은 커다란 철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희생자들을 부수고 잡아먹었으며, 남은 것은 모두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든 짐승들과 달랐고, 뿔이 10개 있었습니다. 좋아, 그래서 나는 종종 이 짐승을 Robo-Beast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로봇에 대한 개념이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설명은 철 이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사 해석자는 이 특별한 짐승의 쇠뿔을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짐승은 너무 초자연적이어서 유기적이고 일반적인 동물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뿔이 10개 있습니다. 이제 뿔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물론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미지 속에서는 초강대국, 초강대국을 상징하는 초강력 짐승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 뿔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앞에 또 다른 뿔, 곧 작은 뿔이 그 가운데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뿔 중 세 개가 그 앞에서 뽑혔습니다.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에는 자랑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강조점은 아마도 정치적이고 강력한 인물을 나타내는 뿔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을 식별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환상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가 얻는 것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억압하는 악한 인간 세력을 대표하는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다음에는 바사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느니라. 비전의 후반부는 장면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인간을 대표하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신의 영역을 대표하는 인간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성에 대한 명시적인 가르침이 많지 않은 구약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은 상당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읽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혹적이며 종종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됩니다.

내가 보니 보좌들이 놓여 있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의 옷은 눈처럼 하얗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다.

그의 왕좌는 불타고 그의 바퀴는 모두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의 강이 그의 앞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그에게 참석했습니다.

만만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고대부터 항상 계신다는 것은 아주 늙은 인물이지만 늙고 노쇠한 인물이 아니라 늙고 강력한 인물로서 왕좌에 앉아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매우 심오하고 위엄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모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 뿔이 내는 자랑하는 말을 인하여 내가 지켜보려고 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바라보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더라. 다른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일정 기간 동안 살도록 허락되었더라. 내가 밤에 이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라.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받았느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의 백성이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에 오신다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극적이며 구약의 맥락에서 다소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자, 이미 다니엘 시대 이전의 성경에서 우리는 야훼가 구름을 타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68편이든, 시편 104편이든, 나훔 1장이든, 이사야 19장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고대 근동 문맥에서는 신들, 심지어 폭풍의 신인 바알과 같은 신도 구름을 탄 자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내 요점은 구름 기수는 신성한 인물이고 이 사람은 인자와 같은 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의 아들로 자주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자를 탄 것이 아니라 인자가 구름을 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신약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일이라고 확실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대여섯 번 인용되거나 암시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 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그림은 제가 3단계라고 부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가 너를
압제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명령을 받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서 그 왕국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유배 이후의 선지자인
스가랴의 마지막 장인 스가랴 14장과 같은 유사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두 구절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와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는 미래의 날, 즉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주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는 네 소유가 네 성벽 안에서
약탈당하고 나뉘리라.

내가 모든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그것과 싸울 것이다. 그 도시는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강간을 당할 것이다. 그 성읍의 절반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나머지 백성은 그 성읍에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리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나라들과 싸우시리니 전쟁 날에 싸우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동서로 둘로
갈라져 큰 골짜기를 이루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산 골짜기로 도망할지니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임이니라

너희는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자들에 대한 이 언급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천사 군대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날에는 햇빛도 없고 차갑고 서리가 내린 어둠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날은 낮과
밤의 구별이 없는 유일한 날, 오직 주님만 아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여름과 겨울에 지중해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그 전투를 묘사하며 12절로 건너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던 모든 나라를 치실 재앙이니라.

그들이 아직 발로 서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살은 썩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들의 혀는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 날에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공격할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주위 모든 나라의 재물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의복. 그와 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당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임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장을 읽지는 않겠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본 것과 비슷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즉, 지금은 억압적인 상황에 살고 있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사로 오시리니 그가 너희를 압박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마지막 예는 포로 이후의 또 다른 선지자인 말라기서 4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짧은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명 그 날이 오고 있느니라.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가오는 날이 그들을 불사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에게는 뿌리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아들이 그 광선으로 치료함을 받고 일어나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살진 송아지 같이 뛰놀리라. 그러면 네가 악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 종 모세의 율법, 곧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일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완전히 멸절시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포로 생활과 포로 생활 이후의 선지자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사이신 야훼께서 돌아오시는 환상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소위 신구약 중간기, 즉 성서와 다른 유대 문학 사이의 기간
전체에 걸쳐 반영됩니다.

이제 신약성경으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4단계는 예수님께서
전투를 강화하여 영적인 힘과 권위를 향해 나아가시는 때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마태복음 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요단강 근처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 것은 그가 이 다가오는 분에 대해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가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의 손에는 키가 있고 그는 타작마당을 정돈하여 밀을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및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기대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줄
사람은 겨울 다 모아 불사르고, 도끼를 들고 썩은 나무를 찍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동안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사역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일으키고,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는 두 제자를 예수께 보내며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이오니,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질문 뒤에는 예수님, 겨가 어디에서 타고 있습니까? 맵소사, 자르는 도끼는 어디에 있나요? 글썄요, 예수님은 맏을 데리고 작은 사역 여행을 가셨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훈련시키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요한에게 당신이 본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요한, 당신은 올바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전투가 영적인 힘과 권위를 향하도록 고조시키고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존, 당신은 죽임으로써 이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 적은 죽어서 패배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틀렸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그가 틀리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여기에 내 아버지의 천군을 무수히 거느릴 수 있었으나 나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므로 예수께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연히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사역, 부활, 승천을 묘사하기 위해 때때로 군사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의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15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너희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법적인 빚을 취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을 잘 들으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승리자 속죄 모델이라고 부를 것이며 다른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승리, 군사적 승리로 묘사되고 있으며

대중의 광경은 당시의 관행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인들은 큰 승리를 거둔 후 죄수들을 이끌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바울이 언급한 또 다른 바울 서신인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승천하시려고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전쟁과 관련된 시편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성한 전사 찬송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싸움을 고조시키고 격렬하게 하십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틀렸는가? 그리고 저는 이미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는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 즉 예수께서 단지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거나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이제 5단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 인간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간략하게, 다른 하나는 좀 더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마태복음, 즉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6절과 27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라 그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기서 다니엘 7, 13, 14장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죠? 그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구약의 배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일종의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신성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것은 그의 인성을 강조하는

반면 그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는 다니엘 7장, 13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14장이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다양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을 타고 돌아오시지만, 그분이 최종 승리를 거두러 오시는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9, 11장과 그 이후는 그의 재림에 대한 일종의 절정적인 진술입니다. 거기에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였느니라.

자, 분명히 이것은 말을 탄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피에 젖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불 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편, 이사야, 신명기, 에스겔서 등에 대한 작은 인용문이 잔뜩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성한 전사여, 그것들은 이제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앞서 읽은 시편 98편을 참조하여 공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있는데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야훼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만국을 칠 날카로운 검이 나오느니라. 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시편 2편).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시험하시며, 이는 이사야에게 암시된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썼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너희가 왕들과 장군들과 힘센 말들의 고기를 먹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기수들, 그리고 자유인과 종, 크고 작은 모든 사람의

육체입니다. 또 나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모였느니라.

그러나 그 짐승과 그 대신 표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 표징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였더라. 그들은 유향이 타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칼에 죽으매 모든 새도 그 살에 불탔더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여기에는 악한 인간에 대한 묘사가 있으니 18절에는 왕들과 장군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권세들과 앞서 말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라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그림에서 예상되는 최종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폭넓은 신학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 모두에서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성찰할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Tremper Longman입니다. 이것은 세션 4, 3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십니다. 4단계: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강화하고 강화하십니다. 5단계: 예수께서는 인간과 영적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